석유화학, 하반기 내수 3.2% 확대

KIET, 세계경제 부진 지속 … 수출은 자동차·일반기계 10%대 증가

산업연구원(KIET)은 6월26일 발표한 <2012년 하반기 경제·산업 전망>에서 2012년 국내 경제가 3.2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.

KIET는 "유로존 위기와 선진국의 전반적 부진,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"이라며 유로존 위기가 6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국내총생산(GDP)이 3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KIET는 연평균 국제유가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유로존 위기로 원/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011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.

민간소비는 소득 및 임금 증가세,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겠지만 가계부채 부담 및 고용 회복세 둔화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2011년과 비슷한 2.3%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.

설비투자는 수출 둔화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회복을 저해하고 있지만 반도체, 자동차, 통신기기 투자가 확대되면서 6.2%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.

수출은 하반기 들어 상반기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아지겠지만 세계경제 부진으로 연간 증가율은 2011년보다 훨씬 낮은 3.0%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.

수입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증가율이 다소 높아지면서 연간 5.2%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.

하반기 내수는 자동차가 3.3% 감소하고 석유화학(3.2%), 가전(3.2%), 일반기계(1.7%), 정보통신기기(1.0%) 등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수출은 자동차(10.2%), 일반기계(10.4%)가 10%대의 증가율을 유지하지만 유럽의 수요 부진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조선(-9.7%)과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철강(-6.2%)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26>